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1-2



정답과 해설



1. 비판적으로 듣고, 매체로 표현하고

(1)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본문 2~9쪽

핵심 체크

- 01 (1) 연관성 (2) 오류 (3) 정보
02 (1) ㉔ (2) ㉒ (3) ㉑ 03 실천 가능

문제 맞보기

- 01 ④ 02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② 07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내공 심화 문제

- 01 ⑤ 02 ⑤ 03 '수미'는 '청소년기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시기'라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에서처럼 연예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도록 해야 한다. 04 ①
05 '정우'는 하나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고, [A]도 세 명의 의견을 학생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두 의견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어휘 문제

- 01 ㉔ 02 ㉑ 03 ㉒ 04 오류
05 안전 06 논제 07 역량 08 육안
09 ③ 10 ②

핵심 체크

- 01 (1) 주장이 담긴 말을 들을 때에는 근거와 주장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주장이 담긴 말을 들을 때에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 02 (1) 친구 한 명의 사례만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이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 제한을 반대한다는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이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청소년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청소년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

들어야 한다는 근거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의견은 타당하다.

- 03 공약을 내세우는 연설을 들을 때에는 그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맞보기

- 01 '준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다. 그러나 '수미'가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정보는 주장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02 제시된 공약은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인 관점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내공 확인 문제

- 01 이 글의 사회자가 말한 내용에서 이 토론의 논제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미'가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 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토론 과정을 보면 찬성 측이 먼저 발언한 뒤 반대 측이 발언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③ '수미'는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 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진다는 정부 발표를 담은 신문 기사 내용을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고 있다.

④ '정우'는 연예인이 된 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서운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은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⑤ '영재'는 진로와 관련된 강연에서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한 강연자들의 말을 근거로 들어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02 이 토론에서 '영재'는 청소년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ㄱ)을, '지민'은 청소년들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청소년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ㄷ)을 근거로 제시하여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찬성 측의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내용 기르기

주장이 담긴 말을 들 때는 먼저 주장과 근거를 구별해야 해. 특히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분한 다음, 그 근거에 오류는 없는지 판단하면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해.

03 '소연'은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황하던 청소년이 연예인의 영향을 받아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는 것과,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소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04 이 연설에서 연설자는 청중에게 '낙타'라고 하면 어떤 말이 바로 떠오르는지 묻고 있지만, 청중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연설자는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며 공식적인 자리에 맞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
 ② 이 학생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의형제·의자매 제도 실시', '건의함 설치', '아침 식사 제공', '학생 자치회 활성화'와 같이 공약을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 각 공약을 제시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최준서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와 같이 말하며 연설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낙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하여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5 이 연설에서 누리 소통망(SNS)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주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누리 소통망(SNS)으로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현재 형식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는 학생 자치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학급에서 올라온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② 누리 소통망(SNS)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③ 같은 반 친구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다른 학년에 선후배들과의 의형제·의자매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④ 얼마 전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06 의형제·의자매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의형제·의자매를 시행하면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되어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의형제·의자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되는 것에는 연관성이 별로 없으므로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07 서술형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아침 식사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내세운 것이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다소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설자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 해당 내용을 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학생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다.	☐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내용 심화 문제

01 (가)의 '학생'은 '배우'가 한 말을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말 재미있다고 하니 영화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무턱대고 믿었다가 실제 영화를 보고 실망하고 있다. 즉, 주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배우'의 말)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나)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학생은, 자기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도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준서'이다.

- 오답 풀이** ① '수미'는 정부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② '소연'은 제시한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정우'는 연예인이 된 친구의 인성이 변해 실망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하나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④ '영재'는 진로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2 '지민'은 각 세대에 맞는 문화가 있듯이 청소년이 연예계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청소년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연예계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청소년만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형성하는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청소년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형성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의 종류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각 세대에 맞는 문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가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는 없다.
 ④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는 청소년이 연예계로 진출하여 형성된 청소년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03 서술형 <보기>는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수미'는 청소년기

는 많을 것을 배우면서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도록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수미'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를 통해 누구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지를 썼다.	☐
<보기>를 통해 상대측이 제시한 어떤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썼다.	☐
'.....는라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처럼해야 한다.'의 형태로 썼다.	☐

04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학생들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학생 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신속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형식적으로 열리는 현재 학생 자치회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일 뿐,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은 학생 신분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그러나 ㉡은 충분히 학생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다. 따라서 ㉠이 ㉡과 달리 학생 입장에서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오는 학생이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약이고, ㉡은 학생 자치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한 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약이다.

⑤ ㉠은 아침 식사를 하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주목하여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은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주목하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05 서술형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청소년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우'는 하나의 사례를 전제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A]에 제시된 공약도 '정우'와 같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A]에서는 세 명의 의견이 학생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정우'의 의견과 [A]가 모두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정우'의 의견과 [A]가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

내용 기르기

논쟁에서 성급하게 제한된 증거나 몇몇의 사례만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휘 문제

01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뜻하는 말로, '젊은 세대', '어른 세대'와 같이 쓰인다.

02 '출마하다'는 '선거에 입후보하다.'라는 뜻으로, '회장 선거에 출마하다.', '경선에 출마하다.'와 같이 쓰인다.

03 '활성화하다'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하다. 또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04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오류'이다. 한편 '과실'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이라는 뜻이다.

05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을 뜻하는 단어는 '안건'이다. 한편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희망.'이라는 뜻이다.

06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을 뜻하는 단어는 '논제'이다. 한편 '논점'은 '논의나 논점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라는 뜻이다.

07 빈칸에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역량'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뜻이다.

08 빈칸에는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따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는 눈.'을 뜻하는 '육안'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라는 뜻이다.

09 '주동이 되어 이끄는 것.'이라는 뜻의 낱말은 '주도적'이다. 한편 '능동적'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고, '선도적'은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것.'이라는 뜻이며, '주체적'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10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빈칸에는 '몸을 바른 자세로 가지다.'라는 뜻의 '가누다'를 활용한 '가누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한편 ①의 '가늠하기'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라는 뜻이고, ③의 '가다듬기'는 '정신, 생각, 마음 따위를 바로 차리거나 다잡다.'라는 뜻이며, ④의 '가름하기'는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 따로 되게 하다.'라는 뜻이다.

(2)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본문 10~17쪽

핵심 체크

- 01 (1) 실시간 (2) 그물망
02 특성, 문자 메시지
03 (1) ㉠ (2) ㉡ 04 (1) × (2) ○

문제 맞보기

- 01 ① 02 ② 03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②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온라인 대화에서는 ‘술까말, 강추’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게 줄인 말, ‘ㅇㅈ, ㅋㅋ’와 같이 낱말의 초성자만을 표현한 말, ‘^^, (-▽-)’와 같은 그림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03 ⑤
04 ① 05 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함성
05 본선 06 매체 07 소통 08 ②
09 ②

핵심 체크

01 (1) 인터넷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매체에서는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하여 순서에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02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글을 쓸 때에는 매체가 지닌 특성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가령, 문자 메시지의 경우 휴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 사용하고, 전자 우편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03 (1) 온라인 대화에서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을 많이 사용한다.
(2) 온라인 대화에서는 직접 상대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감정을 나타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그림말(이모티콘)이다. 그림말은 감정이나 표정, 행동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이다.

04 (1)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글을 쓸 때에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줄인 말이나 초성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인터넷 매체는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

은 정보나 사실에 어긋난 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제 맞보기

01 블로그는 웹(web) 로그(log)의 줄인 말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따위를 자유롭게 올리는 웹 사이트이다.

02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뚜렷한 구분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03 <보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 신조어, 초성자만으로 나타난 표현, 그림말 등이 제시되어 있다. 온라인 대화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화의 재미를 높이고 서로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다.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 신조어, 초성자만으로 나타난 표현 등은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림말은 서로 마주 보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내공 확인 문제

01 (가)는 누리집 게시판, (나)는 온라인 대화, (다)는 블로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문자, 사진이나 그림, 소리, 동영상 등 혼합된 정보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자료를 만들어 올릴 수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가)의 댓글에서 ‘미녀와 가수’는 어법에 맞게 ‘몇 개 조가 예선을 통과하나요? 그리고 1학년도 나갈 수 있나요?’라고 표현하는 한편, ‘^^’과 같은 그림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번지의 제왕’은 예선 결과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② ‘작성자’는 게시판에 정보를 올린 생산자로서 ‘번지의 제왕’이 예선 결과의 발표 방법에 대해 묻자 그 내용을 빠뜨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공정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였다.

④ ‘백설 공주’는 ‘미녀와 가수’가 질문한 내용에 ‘작년에는 10개 조가 참여’했다는 정보를 제시하며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순대뿔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반말을 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3 (나)에서는 ‘뽕미?’, ‘레알없어?’, ‘신착순 한명!’, ‘상호 강추 ~^^’와 같이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생략된 단순하고 짧은 형태의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레알없어(레알 없어), 시간있으니까(시간 있으니까), 한명(한 명)'과 같이 띄어쓰기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 ② 'ππ', '^^', '▽▽'와 같은 그림말을 사용하여 감정이나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레알', '슬까말', '강추'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줄인 말이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ㅇㅈ', 'ㅋㅋ'처럼 낱말의 초성자만을 사용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4 (다)는 블로그이다.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따위를 자유롭게 올리는 웹 사이트이다. 따라서 블로그에 사진, 음악, 동영상과 같은 정보를 게시하며 블로그를 보는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나. 블로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과 관련한 정보를 올릴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 ㄹ. 블로그에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ㄹ. 블로그를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릴 때에는 대체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사용한다.

05 (가)와 (나)는 가요제 예선 통과 여부를 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공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는 학교 가요제 상황을 여러 사람과 나누기 위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것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문자 메시지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자 우편에 비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 ② 문자 메시지는 주로 간결한 내용을 보낼 때, 전자 우편은 주로 자세한 내용을 보낼 때 이용한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에 비해 전자 우편이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③ 누리 소통망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우편은 정보를 받은 수용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 누리 소통망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내용 기르기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휴대 전화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할 때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내용을 전달한다. 이와 달리 컴퓨터는 지니고 다니기 어렵고 노트북과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켜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두 매체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06 (가)는 문자 메시지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나)는 전자 우편으로 대체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으로 같은 목적을 지닌 글도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문자 메시지는 내용을 짧게 쓰거나 요약해서 쓰며, 주로 문장 부호를 잘 사용하지 않고 띄어쓰기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전자 우편은 내용을 길게 쓰며 주로 줄 글 형식을 취하며,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띄어쓰기 원칙을 잘 지

킨다. 그런데 (가)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가요제 예선 결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 ② (가)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핵심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으며, (나)는 줄글로 안내 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가요제예선통과, 예비소집, 꼭참석바람'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띄어쓰기 원칙을 지켜 작성하였다.
- ④ (가)는 마침표를 생략하였지만, (나)는 마침표나 쉼표를 생략하지 않고 작성하였다.

07 '왕자 탄 백마'는 '내가 재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예선 탈락이지? 재들은 심사위원과 친해서 예선을 통과한 게 분명해.'라는 댓글을 달았다. 심사 위원과 친해서 예선 통과를 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댓글로 쓰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08 ㉠은 하이퍼링크로, 이것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거나 전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 준다. 대부분의 하이퍼링크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밑줄과 색깔이 함께 표시된다.

내용 심의 문제

01 (가)는 온라인 대화, (나)는 문자 메시지, (다)는 전자 우편이다. 문자 메시지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로, 주로 문자 언어를 사용하며 간단하고 신속하게 내용을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문자 메시지로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휴대 전화의 자판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컴퓨터의 자판을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을 담아 전송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온라인 대화'는 자판으로 입력한 문자 언어를 통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의사소통 매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한 단 한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도 소통할 수도 있다.
- ③ 휴대 전화는 사람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 ⑤ 전자 우편을 활용하면 단순히 문자 언어로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문자 메시지

과거에는 휴대 전화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의 용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분량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거나 핵심 정보만 요약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의 분량의 제한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자료 등도 첨부하여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문자 메시지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야 하는 매체보다 내용을 입력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전히 간단한 내용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된다.

02 서술형 (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온라인 대화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화에서는 대화의 재미를 위해 어법에 맞지 않게 줄인 말이나 신조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표현상 특징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하였다.	☐
각 표현상 특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가)에서 찾아 함께 제시하였다.	☐

03 (나)는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 (다)는 전자 우편이다. (나)와 (다)는 모두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는 비교적 내용을 간략하고 짧게 쓰는 한편,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다)는 줄글 형식으로 자세하고 길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되도록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며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은, (나)와 (다)의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체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분량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전하는 내용이나 형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04 (가)의 누리집 게시판에는 가요제 참가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누리집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그 누리집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게시판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가요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문자 메시지는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③ 블로그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사 등에 따라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올릴 수 있다.
 ④, ⑤ 누리 소통망에 글을 올리면 관계망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쓰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좋아요' 버튼과 같이 그 글에 대한 공감도를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글에 대한 반응을 간단하게 드러낼 수도 있다.

05 (가)의 '순대될라'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고, (라)의 '왕자 탄 백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인터넷 예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인터넷 매체는 모든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을 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을 달 때에는 예의를 지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한다고 답할 수는 있다.

어휘 문제

01 '연예'는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만담,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또는 그런 재주.'를 뜻하는 말로, '연예 활동', '연예 담당 기자'와 같이 쓰인다.

02 '출처'는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를 뜻하는 말로, '출처를 밝히다.', '그 운영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와 같이 쓰인다.

03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공유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04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르는 소리.'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함성'이다. 한편 '고함'은 '크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라는 뜻이다.

05 '경기나 대회 따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선발.'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본선'이다. 한편 '예선'은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음.'이라는 뜻이다.

06 두 문장의 빈칸에는 공통적으로 '매체'가 들어가야 한다.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이라는 뜻이다. 한편 '매개체'는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07 두 문장의 빈칸에는 공통적으로 '소통'이 들어가야 한다.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한편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을 뜻하고, '진행'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감.' 또는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감.'을 뜻한다.

08 '컴퓨터의 단말기가 중앙 처리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는 상태.'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온라인'이다. 한편, '누리집'은 '개인이나 단체가 월드 와이드 웹에서 볼 수 있게 만든 하이퍼텍스트.'를 뜻하고,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뜻하며, '오프라인'은 '단말기의 입출력 장치 따위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뜻한다.

09 화상 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실시간'의 뜻이 '실제 흐르는 시간과 같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간대'를 뜻하는 낱말은 '동시간대'이고,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낱말은 '공시적'이며,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낱말은 '시간'이다.

(3)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본문 18~25쪽

핵심 체크

- 01 (1) 시각적, 청각적 (2) 시각 이미지
02 시나리오, 편집하기
03 (1) 시나리오, 이야기판 (2) 시청 대상
04 (1) 각도 (2) 미술 05 (1) ○ (2) ×

문제 맛보기

- 01 ③ 02 ⑤ 03 ①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② 03 강민재 04 ④
05 ⑤ 06 룡 숲, S# 5-1 07 ④
08 ⑤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② 03 효과음, 장면을 실감
나게 한다. /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04 ② 05 ⑤ 06 ⑤ 07 ⑤

어휘 문제

- 01 방법 02 글 03 영상 04 분담
05 섭외 06 상영 07 역순 08 기획
09 ㉠ 10 ㉠

핵심 체크

- 01 (1)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시각적 요소에는 시각 이미지, 자막 등이 있고, 청각
적 요소에는 대사, 효과음, 음악 등이 있다.
(2) 촬영기로 촬영한 영상 화면을 시각 이미지라고 한다.

- 02 영상 제작 과정은 '계획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시나리
오 작성하기 → 이야기판 작성하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
감상하고 평가하기'의 단계를 거친다.

- 03 (1) 촬영할 때에는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바탕으로 영상
을 찍는다.
(2) 영상 제작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의 주제와 목
적, 시청 대상, 갈래 등을 정해야 한다.

- 04 (1)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기와 대상의 거리 및 각도 등을
조절하며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2) 작품 내용에 어울리는 장소를 섭외하는 일은 미술 담당자가
한다. 편집 담당자는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 자막 등을 적절
하게 사용하는 일을 한다.

- 05 (1) 효과음은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 주기 위해 넣는 소리
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 대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화면에 다 보이도록 찍는 것은 풀
샷(full shot)이다. 웨이스트 샷(waist shot)은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화면에 보이도록 찍는 것을 말한다.

문제 맛보기

- 01 대사, 음악, 효과음은 청각적 요소에 해당하고, 화면, 자막
은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02 이야기판을 만들 때에는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
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촬영
방법 등의 정보를 정리한다.

- 03 영상 제작 과정을 평가할 때에는 부문별로 평가하는데, 시
나리오 부문에서는 영상의 흐름과 구성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오답 풀이 ② 촬영 부문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③ 연기 부문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④ 감독 부문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⑤ 편집 부문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내공 기르기

영상 제작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볼까?

- 감독: 영상 제작 과정 전체를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는가?
- 시나리오(대본): 영상의 흐름과 구성이 적절한가?
- 촬영: 상황이 잘 드러나게 촬영하였는가?
- 연기: 감정이 잘 드러나게 연기하였는가?
- 미술: 내용과 어울리는 장소를 섭외하였는가? / 상황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였는가?
- 편집: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편집하였는가?

내공 확인 문제

- 01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내
용을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한다(㉡). 그 다음 작성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영상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
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야기판을 작성한다
(㉣). 이렇게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이 작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
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을 모두 마친 후에는 편집을
하면서 영상의 흐름에 맞게 영상을 구성하거나 배경 음악, 효과
음, 자막 등을 넣는다(㉥).

- 02 (가)에서 학생들은 영상물의 주제, 목적, 시청 대상, 갈래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배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이
야기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기획안에는 모두 구성원이 어
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배역을 하
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나라'의 말을 통해 제작할 영상의 시청 대상이 같은 학
교의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기획안에 제시된 '역할 분담'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기획안에 제시된 '상영 시간'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나라'의 말을 통해 영상의 주제가 '첫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할은 '편집'이다. '편집'
담당자는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거나 시나
리오의 흐름에 맞게 촬영한 영상물을 짜깁기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면제'이다.

내용 기르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이 특정 장면을 편집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출연진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촬영한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기 전에 덜어내 달라는 요구이지. 하지만 편집은 촬영한 장면을 덜어내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촬영한 장면을 선택하고 촬영한 장면을 흐름에 맞게 배열하는 일,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는 일, 그밖에 영상에 필요한 시각 이미지를 넣는 일 등 다양한 일을 한단다.

04 (가)는 시나리오로 내레이션과 효과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촬영 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이야기판으로 장면 내용을 그림과 글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촬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우의 빨라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린다.'와 같은 효과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S# 5-1'에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같은 효과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대사로 제시하고 있다. (나)의 'S# 5-2'에서 '선생님'의 대사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 제시된 내레이션과 효과음을 통해 '여름'과 '작이 되어 설레는' '민우'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S# 5-3'과 'S# 5-4'에서 '민우'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⑤ (나)에는 장면 그림뿐만 아니라, 장면 내용과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05 이야기판은 화면 상황과 구도를 나타낸 문서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보여 준다. 이야기판에는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세분화하여 표시할 뿐만 아니라 장면 그림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행동과 촬영 방법을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각 장면의 대사, 효과음, 음악 등을 함께 제시한다. 제작진은 이야기판을 통해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하고, 촬영 및 편집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

06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영상은 '롱 샷'의 방법으로 촬영한 장면으로, 촬영기를 대상에게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해야 하는 장면은 'S# 5-1'이다. '롱 샷'은 반 전체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샷의 개념과 종류

- 샷의 개념: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 종류

롱 샷 (long shot)	촬영기를 대상에게서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
풀 샷 (full shot)	대상의 머리부터 발까지가 화면에 다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
웨이스트 샷 (waist shot)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가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
클로즈업 샷 (close-up shot)	대상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

07 ㉠은 내레이션이다. 내레이션은 영화나 방송국, 연극 등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영화에서 내레이션은 인물이 자신의 속마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을 관객에게만 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08 'S# 5-4'는 '여름'과 '작이 되어 설레는' '민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따라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추가하여 '민우'의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이야기판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효과음으로 해당 장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문이 열리는 소리는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올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 상황을 나타낼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심화 문제

01 (나)는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각본이다. 시나리오 오는 인물의 대사, 지문, 장면 표시, 해설, 내레이션,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상황과 구도는 이야기판에 제시되며, 기획 의도는 기획안에 제시된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기획안으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③ (나)는 시나리오로, 인물이 하는 말인 대사,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를 나타내는 지문, 장외에서 극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내레이션,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해 주는 효과음 등으로 구성된다.

⑤ (다)는 이야기판으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상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장면을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촬영 방법 등을 정리한다.

02 (다)는 화면 상황과 구도를 나타내는 이야기판으로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촬영 방법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나리오상 한 장면일지라도 인물 간의 관계, 장면에 담아야 하는 상황 등에 따라 촬영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야기판에서는 하나의 장면을 세분화하여 나타내며(㉠), 세분화된 장면마다 어떻게 촬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오답 풀이 ㉠, (나)의 시나리오에도 '내레이션'이 제시되어 있다.

㉡.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문이 담겨 있는 것은 (나)의 시나리오이다. 이야기판은 그림을 통해 인물들의 위치나 행동, 표정 등을 알려 준다.

[참고 자료] 이야기판

이야기판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광고 따위를 제작할 때, 촬영할 화면의 상황과 구도를 미리 그림으로 나타내어 연출자의 의도를 시각화함으로써, 제작진들이 촬영 및 편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스토리보드라고 한다. 이야기판에는 장면 그림,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03 서술형 시나리오에서 'E.(Effect))'는 효과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효과음은 장면을 실감 나게 하기 위해 넣는 소리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 명칭과 효과를 알맞게 썼다.	☐
㉠의 명칭과 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은 교실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요소일 뿐, '민우'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름'이 등장하기 전이므로 작품의 흐름상 '여름'을 보고 설레는 '민우'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롱 샷'은 촬영기를 대상에게서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으로,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드러내기에는 적합한 촬영 방법이다.

③ 'S# 5-2'에서 제시된 촬영 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인 '웨이트 샷'이 적절하다.

④ 'S# 5-3'에 제시된 촬영 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민우'를 '웨이트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야기판에 제시된 대로 '민우'의 속마음을 내레이션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⑤ 'S# 5-4'에 제시된 촬영 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클로즈업 샷'으로 '민우'의 가슴을 가까이에서 확대하여 촬영해야 하며, '하트 모양'은 촬영기로 직접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05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후'라는 자막을 넣었다. (가)의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우'는 '여름'의 오빠를 남자 친구로 오해하여 일부러 '여름'을 멀리하였는데, 일주일 후 횡단보도에서 '여름'과 마주치게 된다. '일주일 후'라는 자막은 이러한 정보를 관객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일주일 후'라는 자막은 '민우'가 '여름'을 멀리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더 잘 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일주일 후'라는 자막이 일주일 만에 마주친 장면을 더 실감 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면을 실감 나게 하는 것은 효과음의 역할에 해당한다.

③ '민우'가 '여름'을 좋아하는 마음과 '일주일 후'라는 자막은 관련이 적다.

④ '일주일 후'라는 자막이 사건이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전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06 [A]는 '민우'가 지각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나는 상황이라도 주눅이 든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촬영기를 '민우'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촬영한 것이다. 반면 [B]는 '민우'를 혼내는 '선생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촬영기를 '선생님'보다 낮게 하여 촬영한 것이다. 또한 [A]와 [B]는 모두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한 것이다. 이처럼 인물 가까이에서 인물의 상반신만 촬영하는 방법은 '웨이트 샷'이다. '롱 샷'은 촬영기를 대상과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법이다.

07 촬영하기 단계에서는 찍을 장면의 내용과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촬영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음악과 효과음을 넣는 것은 촬영하기 단계가 아니라 편집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모두 구성원끼리 함께 읽을 책을 고를 때에는, 모두 구성원의 흥미와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책 읽기 경험을 나누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읽기 경험을 나누어 보면서 책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의 주제와 목적, 시청 대상뿐만 아니라 갈래, 제작 기간, 촬영 장소, 촬영 소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이야기판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촬영 기법,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야기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어휘 문제

01 '기법'은 '기교와 방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비법'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02 '대본'은 '연극의 상연이나 영상 제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글.'을 말한다. '문서'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뜻이다.

03 '영상제'는 '여러 영상 작품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상영하는 행사.'를 말한다. '동영상'은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04 '나누어서 믿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분담'이다. '할당'은 '몫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몫.'이라는 뜻이다.

05 '연락을 취하여 의논함.'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섭외'이다. '초빙'은 '예를 갖추어 불러 맞아들임.'이라는 뜻이다.

06 '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하는 일.'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상영'이다. '상연'은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일.'이라는 뜻이다.

07 빈칸에 '역순'이 들어가야 한다. '역순'은 '거꾸로 된 순서.'라는 뜻이다. '역전'은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이라는 뜻이다.

08 빈칸에 '기획'이 들어가야 한다. '기획'은 '일을 꾀하여 계획함.'이라는 뜻이다.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이라는 뜻이다.

09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이라는 뜻으로 쓰인 '영상'은 ㉠이다. ㉡의 '영상'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나 광경.'이라는 뜻이다.

10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한데 묶다.'라는 뜻으로 쓰인 '총괄하다'는 ㉠이다. ㉡의 '총괄하다'는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하다.'라는 뜻이다.

2. 간추리는 재미, 만나는 즐거움

(1) 요약하며 읽기

본문 26~35쪽

핵심 체크

01 (1) ○ (2) ○ (3) × (4) ×

02 지혜로움

03 (1) 여정 (2) 문제, 문제 해결

문제 맛보기

01 ⑤

02 ⑤

핵심 체크

01 (1) × (2) ○

02 삭제

03 구성 단계

문제 맛보기

01 ④

02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03 ⑤

내공 확인 문제

01 ⑤

02 ③

03 ④

04 원천강

05 ②

06 ⑤

07 ③

내공 심화 문제

01 ①

02 '오늘이'가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오늘이'가 신이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03 ④

04 ⑤

05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 시장을 확대하자.

06 ⑤

07 ⑤

08 ④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하직

05 요약

06 기약

07 보완

08 ④

09 움

10 ①

핵심 체크

01 (1) '장상'이 왜 밤낮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 '오늘이'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2) '연꽃 나무'는 '오늘이'에게 왜 맨 윗가지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큰 뱀'은 '오늘이'에게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고 있으니 어찌면 좋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오늘이'는 '연꽃 나무'에게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면 가지마다 꽃이 핀다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고, '연꽃 나무'는 맨 윗가지에 핀 꽃을 '오늘이'에게 주었다. 또한 '오늘이'는 '큰 뱀'에게 여의주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고, 큰 뱀이 여의주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었다.

(3) '오늘이'가 '장상'을 '매일리'에게 이끌고 가 부부의 연을 맺어 준 것이 아니라 '매일리'를 '장상'에게 이끌고 가 부부의 연을 맺어 준 것이다.

(4) '오늘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서, 원천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천강에 오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부탁받았던 일을 해결한다.

02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던 중 선녀들을 만났는데, 선녀들은 우물물을 다 펴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가 없어 울고 있었다. 이에 '오늘이'는 땡땡이덩굴을 으깨어 뭉쳐서 두레박의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틈을 막아 선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러한 '오늘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이'가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1)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도중 흰모래 마을 별충당에서 '장상'을, 연화못에서 '연꽃 나무'를, 청수 바다 모래밭에서 '큰 뱀'을, 길가 별충당에서 '매일리'를, 길 옆 우물가에서 '하늘나라 선녀들'을 만난다. 즉 '오늘이'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에 여러 장소에 들르며 다양한 대상을 만나므로 이 이야기는 '오늘이'의 여정에 따라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2) 이 이야기는 '오늘이'가 여러 대상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 맛보기

01 '하늘나라 선녀들'은 우물물을 다 펴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오늘이'는 땡땡이덩굴을 으깨어 뭉쳐서 두레박의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틈을 막아 물이 새지 않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준다.

02 '오늘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서, 원천강에 오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부탁받았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말에 책임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 체크

01 (1)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마을이 학교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2) '마을학교'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02 요약이란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등의 규칙에 따라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삭제'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로 든 내용 등 부차적인 내용들을 지워서 핵심 내용만 남기는 요약 방법이다.

03 「먹을거리 문제, 농장 시장으로 해결하자」에서 글쓴이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먹을거리 문제, 농장 시장으로 해결하자」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성 단계에 따라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문제 맞보기

01 「마을학교」에서는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마을 축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세우기, 마을의 문화 예술 공간 만들기 등 마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02 <보기>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마을에 왜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해야 한다.

03 「먹을거리 문제, 농장 시장으로 해결하자」는 주장하는 글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성 단계에 따라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문제를 제기한 다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요약할 때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로 든 내용은 삭제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예시를 포함하여 요약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글은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사계절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선녀가 되는 비범한 존재의 이야기를 다룬 '신화'에 해당하므로 평범한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평범한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은 '민담'에 나타난다.

[참고 자료] 설화의 개념과 종류

설화는 옛날부터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신화	전설	민담
성격	신성성, 위엄성	신빙성, 구체성	흥미성, 교훈성
주인공	신적 존재로 초능력을 발휘함.	비범한 인간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함.	평범한 인간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함.
배경	아득한 옛날,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막연한 시간과 장소
증거물	포괄적	개별적	없음.
전승 범위	민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02 「매일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는 '오늘이'에게 “이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는 선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녀들한테 물어보면 알려 줄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매일이」가 「오늘이」를 직접 원천강까지 데려다 준 것은 아니다.

03 이 글은 부모님을 찾아 길을 떠난 '오늘이'가 사계절을 전하는 선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업적이 아니라 주인공의 여정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요약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또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며,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

-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될 때
-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변화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단계별로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구조일 때

04 이 글에서 「원천강」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이자, 「오늘이」의 부모님인 신관과 선녀가 지키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원천강」에 「오늘이」의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이」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존재였음을 암시한다.

05 이 글에서 「오늘이」는 부모님이 계신 원천강을 찾아가는 동안에 여러 대상을 만나 길을 물어보며 그들의 부탁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시련을 겪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이」가 용감하다고 느끼는 것은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홀로 낯선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용감하며 독립심이 강한 「오늘이」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④ 「오늘이」는 처음 만나는 대상들이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데에서도 「오늘이」의 친절함을 엿볼 수 있다.

⑤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대상들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다시 만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준다. 이처럼 「오늘이」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06 (마)의 중심 내용으로 「마을학교의 가치」는 적절하지 않다. (마)에서는 「마을학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은 「마을학교의 다양한 활동」이 적절하다. 「마을학교」에서는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마을 축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세우기, 마을의 문화 예술 공간 만들기 등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07 (라)에 따르면 「마을학교」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학교」는 마을의 문제 해결, 더 나은 삶터 만들기, 상호 작용을 통한 긴밀한 유대 관계 형성 등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누어 먹고, 네 일 내 일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며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마을학교’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다)에서 ‘마을학교’는 “공간으로서의 ‘마을학교’란 일반 학교처럼 ‘이런 시설이어야 해.’라는 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며 주민 센터, 학교,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마을학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나)에서 “주민은 ‘마을학교’의 주체이자 학습의 원천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에서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마을 축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세우기, 마을의 문화 예술 공간 만들기 등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가)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려면 이야기 안에서 어떠한 사건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가)에서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나)는 설명하는 글이므로, 요약 규칙에 따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⑤ (다)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다.

02 서술형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원천강을 돌보는 선녀가 된다. 선녀가 된 ‘오늘이’는 양손에 여행길에서 얻은 여의주와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떠났던 여행길이 ‘오늘이’가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한(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오늘이’가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연 설명을 삭제하고 중심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의 첫 번째 문단은 예로 든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예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즉, 삭제와 일반화의 방법을 사용해, ‘마을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와 같이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중심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나)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떠든 우산으로 막아 주는 일, 그 기능을 하는 우산이 ‘마을학교’이며, 이것이 ‘마을학교’를 만들려는 까닭이다.”라는 문장이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 제시된 덜 중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공 기르기

요약을 할 때에는 사소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만 간추려야 해.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중 대표적인 것만 남겨야 해. 중심 문장이 없거나 겹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글의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끌어와 중심 내용을 추측해 보아야 해.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아. 이때 각 문단의 핵심어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중심 내용 파악이 더욱 쉬워지겠지?

04 두 번째 문단에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으므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를…….”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요즘 국내산이 아닌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된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농민들은 제 가격에 농산물을 팔기가 어렵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의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5 서술형 (다)의 글쓴이는 농장 시장이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농장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참고하여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6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마을학교’의 경험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움직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역량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서, 마을학교가 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에서는 ‘마을학교’의 기능을 독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쓴 경험)에 비유하여, ‘마을학교’가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 주고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산이 있

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우산이 없어 비를 쫓딱 맞는 사람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맞닥뜨린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학교를 통해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8 (다)에서는 “농장 시장의 농산물은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거두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즉 농장 시장은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속는 일 없이 직접 농산물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어휘 문제

01 ‘유대’는 ‘둘 일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로, ‘유대 의식’, ‘유대 관계’와 같이 쓰인다.

02 ‘매개’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을 뜻하는 말로, ‘독자와 작가는 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03 ‘원천’은 ‘사물의 근원’을 뜻하는 말로, ‘원천 기술’, ‘한강의 원천’과 같이 쓰인다.

04 빈칸에 ‘하직’이 들어가야 한다. ‘하직하다’는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다.’라는 뜻이다.

05 빈칸에 ‘요약’이 들어가야 한다. ‘요약하다’는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다.’라는 뜻이다.

06 빈칸에 ‘기약’이 들어가야 한다. ‘기약하다’는 ‘때를 정하여 약속하다.’라는 뜻이다.

07 빈칸에 ‘보완’이 들어가야 한다. ‘보완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08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량’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뜻하는 ‘능력’과 바꾸어 쓸 수 있다.

09 빈칸에 ‘옴’이 들어가야 한다. ‘옴’은 ‘풀이나 나무에 새로 돌아 나오는 싹.’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0 밑줄 친 부분에서 ‘밑거름’은 마을력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요인.’이라는 뜻풀이가 적절하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하기 전에 주는 거름.’은 ‘밑거름’의 다른 뜻이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은 ‘거름’이다.

(2)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기

본문 36~43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1) 목적 (2) 진행하기
(3) 객관적 **03** (1) 정보 수집 (2) 전자 우편 보내기
(3)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 **4** 허락



문제 맛보기

- 01** ⑤ **02**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면담 대상의 대답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06** ② **07** ②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소소하다
05 쫓아가다 **06** 요청 **07** 경청
08 계기 **09** ④ **10** ①

핵심 체크

01 (1) 면담은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하므로 면담 대상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
(2) 면담의 목적에는 정보 수집, 상담, 평가, 설득 등이 있으며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할 내용이 달라진다.

02 (1)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면담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담 약속을 정한 후 질문지를 작성한다.
(2) 면담 진행하기 단계에서는 면담 대상과 만나 준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 또한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한다.
(3) 면담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면담한 내용을 면담의 목적에 맞게 정리한다.

03 (1) ‘정우’와 ‘나라’의 면담은 요리 예술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 수집이 면담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정우’는 요리 예술사 선생님께 전자 우편을 보내서 면담을 허락받고 면담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다.
(3) ‘정우’와 ‘나라’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요리 예술사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나 분야’,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 ‘요리 예술사가 된 계기’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04 ‘정우’는 면담 대상에게 “저희가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중간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어보면서, 면담 중 녹음하고 촬영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면담 시 녹음이나 촬영을 할 때에는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제 맞보기

01 ‘정우’는 마을 신문에 실리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편집장’과 면담하고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02 커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계획서이므로 면담 목적은 커피 전문가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손님은 누구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은 면담의 목적과 관련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 확인 문제

01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면담 대상과 면담 약속을 정하고, 면담 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면담 대상에서 보내야 한다. 면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면담 대상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할 수는 있으나 면담 대상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면담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은 면담 대상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질문의 유형

질문의 유형에는 주안적 질문과 부차적 질문이 있다.

- **주안적 질문:** 질문자가 일차적으로 묻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을 담은 질문으로 “환경 오염이 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질문이 주안적 질문이다.
- **부차적 질문:** 주안적 질문에 대한 보충적 질문으로 응답자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할 때 쓰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부차적 질문이다.

02 제시된 만화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기 위해 면담을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면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면담은 ‘예술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신입생을 뽑고자 할 때’의 면담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면담이다.

②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면담이다.

④ 부모님께 용돈을 인상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면담이다.

⑤ 선생님께 아침 청소 당번을 정하자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면담이다.

03 면담 내용을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면담 정리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므로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의 대화 상황에서 ‘준서’와 ‘지민’이 학교 신문에 마을 신문 편집장과 면담 내용을 실으면 친구들이 마을 신문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말하고만 있을 뿐, 학생들이 마을 신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5 <보기>에서 ‘준서’가 “요즘 나 고민이 생겼어. 주변 사람에

게 별 까닭 없이 자주 짜증을 내.”라고 말한 것에서 ‘준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자주 내는 문제를 두고 면담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준서’가 진행할 면담의 목적은 상담이다. 그런데 면담 계획서에서는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라고 질문 내용을 제시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보기>의 대화 상황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면담 시 질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다)에서 요리 예술사는 “요즘에는 관련 학원은 물론이고 전공 학과도 있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서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식재료와 관련된 공부를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요리 예술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요리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해 요리 예술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7 (가)에서 ‘정우’는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즉 이 면담의 목적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리 예술사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은 어디인가요?’와 같은 질문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㉔은 일정한 방향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유도 질문이 아니라 부차적 질문에 해당한다. 부차적 질문은 보충적 질문을 말하는데, 주로 응답자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할 때 쓰인다. 중심 질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면담 대상이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부차적 질문을 할 수 있다.

내용 기르기

면담에서 질문을 할 때 반드시 미리 준비한 질문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질문지에 없더라도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 이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차적 질문이란단.

내용 심화 문제

01 (가)에서 ‘정우’가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요리 예술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정우’가 면담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면담자인 ‘정우’와 ‘나라’가 요리 예술사에게 질문한 내용은 (가)에서 밝힌 요리 예술사에게 궁금한 점들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므로, 면담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정우’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 궁금한 것들을 여쭙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면담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정우’는 “우연히 잡지에서 선생님의 기사를 ……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④ (나)의 '정우'와 '나라'가 요리 예술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한 것에서, 면담 목적이 정보 수집임을 알 수 있다.
- ⑤ (가)는 면담자가 면담 대상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면담 준비 단계에 속하고, (나)는 실제 면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면담 진행 단계에 해당한다.

02 면담을 하기 전 면담 대상에게 면담을 허락받고 면담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연락할 때에는 면담의 목적, 면담 대상의 면담 수락 여부를 묻는 내용, 면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내용, 면담에서 질문할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면담 시 각 면담자의 역할은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면담자들이 정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면담 대상에게 면담을 요청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03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정우'는 요리 예술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요리 예술사'가 어떤 영역이나 분야에서 일하는지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므로, 질문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면담 대상자의 수입을 묻는 것은, 면담 대상자의 기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므로 질문지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③, ⑤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요리 예술사는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이 흔히 음식의 걸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요리 예술사가 하는 일을 흔히 음식의 걸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05 서술형 ㉠에서 '나라'는 요리 예술사 일을 하려면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강한 체력이 필요하더니 미처 몰랐어요."라고 요리 예술사의 말을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면담 대상의 대담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라는 면담할 때의 유의할 점을 썼다.	☐
완전한 한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면담할 때의 유의점

- 질문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하기
- 면담의 목적을 면담 대상에게 미리 알리기
- 면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은 하지 않기
- 면담 대상의 대담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 녹음이나 촬영을 할 때에는 미리 면담 대상에게 허락받기

06 '정우'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일 뿐 면담 이후 '정우'가 반드시 요리 예술사를 진로로 선택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07 <보기>는 커피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 학생이 '커피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는 '커피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망은 어떠한지,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만 나타나 있으므로, 면담 목적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 목적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질문하였을지도 모르지만, <보기>의 내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휘 문제

01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말로, '단독 면담', '면담 시간'과 같이 쓰인다.

02 '지원하다'는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동아리에 지원했다.', '군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와 같이 쓰인다.

03 '치중하다'는 '어떠한 것에 특히 중점을 두다.'라는 뜻으로, '그는 체력을 기르는 데 치중했다.'와 같이 쓰인다.

04 '작고 대수롭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소소하다'이다. '간결하다'는 '간단하고 깔끔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5 '남의 말이나 뜻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쫓아가다'이다. '쫓아가다'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6 빈칸에 '요청'이 들어가야 한다.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이라는 뜻이다.

07 빈칸에 '경청'이 들어가야 한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이다.

08 빈칸에 '계기'가 들어가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는 뜻이다.

09 '양성하다'는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내다.'라는 뜻이다. '보육하다'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기르다.'라는 뜻이므로 '양성하다'와 바꾸어 쓸 수 없다.

10 밑줄 친 부분에서 '승화하다'는 진정한 황제라는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다.'가 뜻풀이로 알맞다.

3. 생각을 나누는 삶

(1) 언어의 본질

본문 44~51쪽

핵심 체크

- 01 (1) 필연적 (2) 자의성 02 사회적 약속, 개인
03 (1) ○ (2) × 04 언어의 창조성

문제 맞보기

- 01 ④ 02 ④ 03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② 02 ③ 03 언어의 역사성
04 ③ 05 ① 06 ⑤ 07 ②
08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④ 06 '닉'처럼 마음대로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문제

- 01 서약 02 진열 03 창조적 04 본질
05 재촉하다 06 선반 07 필연적
08 ② 09 ③

핵심 체크

01 (1) 언어는 말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둘이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원리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언어의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2) '은하수, 밀키 웨이(Milky Way), 갤럭시(Galaxy)'를 통해 동일한 대상을 부르는 말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02 '민지'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은하수'를 '사랑강'으로 바꾸어 쓰면 다른 사람이 '사랑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03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 뜻이 변하기도 한다.

(2) '어리다'와 '늠'은 뜻이 변한 예이다.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늠'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뜻이 변하였다.

04 <보기>는 '바람'과 '불다'라는 두 낱말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 맞보기

01 어떤 말소리와 뜻이 연결되는 데에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원리나 법칙이 없다.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소리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는 뜻(내용)과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로 이루어진다.
② 언어는 말소리에 뜻을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③ 같은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슬기, 울갱이, 골배, 데사리'와 같이 뜻은 같지만 말소리가 다른 낱말이 존재한다.
⑤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02 '누리꾼, 컴퓨터'는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말이며, '온(백), 즈믄(천), 뫼(산), 가람(강)'은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다.

03 언어의 창조성이란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에 맞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낱말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특성을 뜻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가)에서 "어떤 말소리와 뜻이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칙은 없다. 즉,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뜻(내용)이 결합하는 규칙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는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는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는 (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나)에서 말소리와 뜻은 자의적으로 연결되었지만, 그 말이 사회 전체에 널리 쓰이게 되면 개인이 함부로 바꾸거나 없애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 '아들'은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인 '학교'를 임의대로 '책상'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내공 기르기

수많은 자동차들이 신호를 지키면 도로가 매우 혼잡해지듯이,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어 쓰면 의사소통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만화에 나타난 학생처럼 '학교'를 '책상'이라고 부르면 자신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울 거야. 물론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변화 역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졌을 때 변한 말이 인정되는 거란다.

03 서술형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쓰이지 않게 되거나 뜻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말을 정확히 썼다.	☐

04 '희망'이라는 낱말을 활용하여 '희망을 품다.', '그는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내었다.'와 같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울갱'이나 '데사리'는 '다슬기'를 뜻하는 지역 방언이며, '정구지'나 '술'은 '부추'를 뜻하는 지역 방언이다. 이는 뜻은 같지만 말소리가 다른 낱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알 수 있다.

② 과일인 '배'와 신체인 '배'는 말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알 수 있다.

⑤ '나비'를 나라마다 'papillon' 또는 'butterfly'라고 부르는데, 이는 뜻은 같지만 말소리가 다른 낱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자의성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05 '온'과 '즈믄'은 옛날에 '백'과 '천'을 뜻하는 말로 쓰였던 낱말들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말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온'과 '즈믄' 대신에 '백'과 '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온'과 '즈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옛날에 쓰던 말이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언어의 규칙성

'헤지가 민지를 불렀어.'와 '헤지를 민지가 불렀어.'는 조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이는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사례로, 언어는 조사나 어미의 쓰임,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 등 모든 언어의 사용 양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짐을 보여 준다. 즉 언어의 규칙성이란 언어는 일정한 원리와 규칙에 따라 구사된다는 것이다.

06 제시된 만화에서 딸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한 편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언어의 창조성 때문이다. 사람들이 짜장면과 짬뽕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내놓은 새 상품에 대해 '짬짜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도, 언어의 창조성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공'이라는 말은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 ③ '어리석다'라는 뜻을 지닌 '어리다'라는 말이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것이나 과거에 '강'을 뜻하던 '가람'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④ '연필'이라는 말소리와 '필기도구의 한 종류'라는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07 '닉'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페니 펜트리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닉'이 펜을 '프린들'로 부른 것은 계획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나)에서 가게 '아주머니'가 '프린들'을 '펜'으로 알아듣는 것으로 보아 '펜'을 '프린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려는 '닉'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닉'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③ '닉'이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뭐라고?"라고 다시 물은 것으로 보아, '아주머니'가 '프린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닉'의 계획에 따라 '데이브', '크리스', '피트', '존', '자넷'이 가게에 찾아가 '아주머니'에게 '펜'이 아닌 '프린들'을 달라고 하였고, 이렇게 친구들이 '프린들'을 사러 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주머니'는 '프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08 '닉'은 낱말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펜'과 '프린들' 모두 필기도구로서의 펜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말소리와 뜻이 임의적으로 연결됨을 보여 주는데 이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내공 기르기

언어의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닉'은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닉'이 그 약속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 것이지. 이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낱말을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

내공 심화 문제

01 (가)에서는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밝히며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이나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02 <보기>로 보아, ㉠은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씩씩하다'도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는데, 과거에 '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굳세고 위엄스럽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오답 풀이 ② '다리[脚]'의 의미가 확대하여 무생물의 다리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으로, '의미의 확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먹다'의 의미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뜻에서 '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되다.' 또는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된 것으로, '의미의 확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④ '짐승'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뜻하는 말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의 폭이 좁아졌다. 이는 '의미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 '놈, 계집'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남자나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의미의 폭이 좁아졌다. 이는 '의미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03 <보기>를 통해 ‘짜장면’이나 ‘개발새발’이라는 표현이 표준어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낱말이 사회 구성원에게 낱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뜻이나 표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짜장면’이나 ‘개발새발’은 비록 표준어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다.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들이다.

③ ‘짜장면’이나 ‘개발새발’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공식적으로 이 낱말들이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다.

⑤ 표준어가 아니었던 ‘짜장면’이나 ‘개발새발’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준어로 인정받은 것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엿볼 수 있다.

04 <보기>에서는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인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은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에 맞는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진 경우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뿌리’는 ‘불휘’에서 온 말로, 표기가 달라진 예에 해당한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② 나라마다 ‘선생’을 뜻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④ ‘미르’는 ‘용’을 의미하는 옛말로,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언어의 사회성을 알 수 있다.

05 ‘닉’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고 ‘펜’이라는 말을 ‘프린들’이라고 자의적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만일 ‘닉’이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펜’ 이외의 이름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반드시 ‘펜’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닉’은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이라고 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근거로 들어 ‘프린들’이 문제 없는 말임을 주장하고 있다.

③ ‘닉’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고 기존에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인 ‘펜’ 대신에 약속되지 않은 단어인 ‘프린들’을 사용하고 있다.

⑤ ‘닉’은 여러 사람들이 ‘프린들’을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친구들을 계획에 끌어들이었다.

06 **서술형**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닉’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펜’을 ‘프린들’로 바꾸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프린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레이저 선생님’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닉’의 행동을 걱정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닉’의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알맞게 썼다.	☐
‘..... 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 문장 형식으로 썼다.	☐

어휘 문제

01 ‘서약서’는 ‘맹세하고 약속함.’을 뜻하는 ‘서약(誓約)’과 ‘쓰다’라는 뜻의 ‘서(書)’가 합쳐져 ‘서약하는 글, 또는 그런 문서.’를 나타낸다.

02 ‘진열대’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죽 벌여 놓음.’을 뜻하는 ‘진열(陳列)’과 ‘물건을 떠받치거나 올려놓기 위한 받침이 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대(臺)’가 합쳐져 ‘물건이나 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든 대.’를 나타낸다.

03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창조적’이다. ‘독창적’은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04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본질’이다. ‘본성’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5 제시된 문장은 비가 여름을 어떻게 하였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어떤 일을 빨리하도록 조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재촉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서두르다’는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급하게 바빠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06 제시된 문장은 무엇 위에 꼴단지가 올려놓아져 있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를 뜻하는 ‘선반’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천장’은 ‘지붕의 안쪽.’을 뜻하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언어의 말소리와 뜻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필연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자의적’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한다.

08 ‘미처’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낱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아직’이다. 한편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라는 뜻이며, ‘약간’은 ‘얼마 되지 않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9 ‘어엿한’의 앞뒤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한편 ‘힘차고 튼튼한.’은 ‘굳센’이라는 낱말의 뜻이며, ‘몸이 작아도 힘차고 다부진.’은 ‘암팡진’이라는 낱말의 뜻이며, ‘사람의 기개, 의지, 태도나 마음가짐 따위가 매우 굳센.’은 ‘꽂꽂한’이라는 낱말의 뜻이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본문 52~59쪽

핵심 체크

- 01 (1) 해결 방안 (2) 협력적 (3) 토의하기
02 (1) × (2) ○ 03 근거

문제 맞보기

- 01 ② 02 ② 03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④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A]에서 '유미'와 '슬기'는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질의
05 수의 06 만물 07 기부 08 ③
09 ②

핵심 체크

- 01 (1)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협력적 말하기 방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토의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토의는 대체로 '논제 정하기 → 토의 내용 마련하기 → 토의하기 → 토의 내용 정리하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 02 (1)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토론이다. 토론에서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자기 측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토의에서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의자들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력적인 태도를 지닌다. 토의에서는 다른 토의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나,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2)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자 간에 의견을 조정할 것을 유도하며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토의자 및 논제를 소개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 03 '유미'는 '정우'의 의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된다. 토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들어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내용 기르기

토의는 협력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어, 토의는 기본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야.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무시한다면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워지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엉뚱한 해결 방법으로 결론지어질 수도 있지. 따라서 토의에 참여할 때에는 토의에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단다.

문제 맞보기

- 01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말하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표나 강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연설에 대한 설명이다.

④ 면담에 대한 설명이다.

⑤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토론

토론은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양측의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말하기이다.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면에서는 토의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협력적인 태도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토의와 달리 토론은 치열한 논박을 통해 결론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02 사회자는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로 참여한 '지민, 정우,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 03 '정우'는 음식 재료 비용을 학급비로 하고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우'에게 질문을 한 토의자는 음식 재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내공 확인 문제

- 01 '나라'는 친구들이 축제에 즐겁게 참여하려면 개성 넘치는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교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은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들은 집에서 쓰던 것으로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교 장터 축제에서 벼룩시장을 열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지민'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새것만 찾는 친구들에게 절약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교 장터 축제에서 벼룩시장을 열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④ '정우'는 축제는 우선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배가 불러야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먹거리 가게를 하면 배도 채워 주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교 축제 장터에서 먹거리 가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2 (가)와 (마)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토의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논제와 '지민, 정우, 나라'가 토의자임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올해부터 학교 축제 기간에 장터를 열기로 하겠다는 점과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지민, 정우, 나라의 순서로 준비해 온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토의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먼저 지민이의 제안에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에서 사회자가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의 '그러면 이제 토의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를 통해 사회자가 토의자 간에 의견 조정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

-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한다.
-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청중의 토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다.
- 토의자 간의 의견 조정을 유도한다.

03 '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지민'과 '정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우'의 의견 중 축제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나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⑤ '나라'는 '지민'과 '정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이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04 (마)에서 사회자가 '정우'에게 질문한 것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정우'에게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것이지, '먹거리 가게 운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 또한 '정우' 역시 토의의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정우'에게 '지민'은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과 선생님께도 물어 물건을 기부받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② 음식 재료를 준비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나라'에게 '정우'는 학급비로 우선 마련하고 모자라면 반 친구들이 조금씩 보태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③ '정우'는 남학생들은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다고 하면서 사진 찍기 체험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우'에게 '나라'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남학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④ 벼룩시장 행사 후 남은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민재'에게 '지민'은 자선 단체에 기증할 생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05 (가)~(다)는 토의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다른 토의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등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토의자 간 의견 교환 단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패널 토의의 절차

- 사회자가 토의 논제와 토의자를 소개한다.
- 토의자들은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한다.
-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는다.
- 청중은 논제와 토의의 흐름에 알맞게 질문하고, 토의자들은 이를 귀기울여 듣고 응답한다.
- 사회자는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토의를 마무리한다.

06 (마)에서 '지민'과 '정우'는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바)에서 사회자는 토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나라'는 친구들 축제에 즐겁게 참여하려면 개성 넘치는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학교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교 축제 장터에서 운영하는 가게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지민'은 '나라'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토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나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민'은 협력적인 태도로 토의에 임한 결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이지, 즉흥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하은'은 사진 찍기 체험장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다면 그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나라'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② '정우'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달리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정우'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남학생이 많이 안 올 경우 사진 찍기 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나라'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④ '대훈'은 독특한 의상과 소품을 빌려주기로 한 아버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하은'과 '지민'이 '나라'의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결과

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나라'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학교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정우'의 의견에 좋은 의견이라고 말하고 '정우'의 질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라'는 토의자나 청중의 질문에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03 '정우'는 장터 수익금이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되면 학급비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에 대해 재료비 영수증을 학생회에 제출하면 재료비를 돌려준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우'가 토의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토의 과정에 따른 토의자의 올바른 자세

토의 직전	• 준비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둔. • 토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완벽하게 이해함.
토의 과정 중	• 바른 자세로 다른 사람의 발언에 주의를 집중함. •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함.
토의 직후	• 자신의 토의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봄.

04 ㉠, ㉡에서 사회자는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토의자들이 발언할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토의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토의자 간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5 서술형 '유미'와 '슬기'는 '정우'의 발언을 듣고 짜증스럽고 빈정거리는 투로 비난하고 있다. 토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가 있더라도 예의 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야 한다. '유미'와 '슬기'의 말하기 태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토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유미'와 '슬기'의 말하기 태도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내용 기르기

'유미'와 '슬기'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어, 토의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다른 토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도 방해가 된단다.

어휘 문제

01 '대여점'은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물품을 빌려주는 가게.'를 뜻하는 말로, '책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과 같이 쓰인다.

02 '합리적'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로, '합리적 선택', '그는 일을 합리적으로 진행한다.'와 같이 쓰인다.

03 '취사도구'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쓰는 기구.'를 뜻하는 말로, '그들은 캠핑장에 취사도구를 챙겨 오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와 같이 쓰인다.

04 '의심나거나 모르는 점을 물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질의'이다.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5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수익'이다. 한편 '수입'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6 제시된 문장은 철학자가 무엇을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만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만개'는 '꽃이 활짝 펴.'를 뜻하는 말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강원도 산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뜻하는 '기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기증'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을 뜻하는 말이다.

09 제시된 문장은 당첨자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준다는 뜻이므로, 밑줄 친 '경품'은 '어떤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 선물로 주는 물품.'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 성장으로 가는 길

(1) 문학 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본문 60~67쪽

핵심 체크 01 (1) × (2) ○ (3) ○ 02 (1) 원망 (2) 수영
03 오해, 수영, 성장 04 빨간 호리병박

문제 맞보기 01 ① 02 ④

내공 확인 문제 01 ② 02 ⑤ 03 ③ 04 '완'이 '뉴뉴'와 친해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05 ⑤ 06 ⑤

내공 심화 문제 01 ② 02 ⑤ 03 ② 04 '뉴뉴'와 '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뉴뉴'와 '완'이 같 등하게 되는 원인)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05 ④ 06 ④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
05 만끽 06 의미심장 07 가장
08 과시 09 ③ 10 ③

핵심 체크

01 (1) '뉴뉴'는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즉 '뉴뉴'는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모습을 들켜고 싶어 하지 않아 못 본 척한 것이다.
(2)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뉴뉴'는 '완'의 도움으로 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뉴뉴'는 물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뉴뉴'가 '완'과 함께 물놀이를 시작한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진다.
(3) '뉴뉴'와 '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다. 그러나 '뉴뉴'가 물에 빠진 이후 '뉴뉴'는 '완'이 자신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행동을 오해하여 '완'을 원망한다. '완'은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지도 못한 채 절망에 빠져 '뉴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불태운다.

02 (1) '뉴뉴'는 '완'이 자신을 물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속였다고 생각하고 '완'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원망을 드러낸다.
(2) '완'은 '뉴뉴'가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 한가운데에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았다.

03 '뉴뉴'는 한순간의 오해로 소중한 친구인 '완'에게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해하면서 빨간 호리병박을 강에 풀어 준다. 또한 혼자 헤엄쳐 강을 건넌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픈 경험을 통해

'뉴뉴'가 깨달음을 얻고, 수영 실력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04 '빨간 호리병박'은 이 소설의 중심 소재로, 이 마을 아이들이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물건이다. '뉴뉴'는 강 한가운데에서 빨간 호리병박을 '완'에게 빼앗겨 물에 빠짐으로써 '완'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문제 맞보기

01 처음 '뉴뉴'와 '완'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여 서로 지켜보기만 한다. 그러다가 '완'이 '뉴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 후 둘은 물놀이를 하며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러나 '완'이 강 한가운데에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아 '뉴뉴'가 물에 빠진 후, '뉴뉴'는 이런 '완'의 행동을 오해하여 '완'을 원망하게 된다.

02 '뉴뉴'는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외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완'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글은 '뉴뉴'와 '완'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뉴뉴'와 '완'이 헤어지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과거-현재-미래'와 같이 흘러가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순행적 구성과는 달리 역순행적 구성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혹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말한다.

02 '완'이 강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으로 향한 것은, '뉴뉴'가 오랫동안 강가에 나오지 않자 '뉴뉴'가 강가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영 연습에만 집중하기 위해 작은 섬에 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뉴뉴'는 강에서 헤엄치는 '완'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두지만, 먼저 '완'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숨어서 몰래 지켜보기만 한다. '뉴뉴'가 이렇게 무관심을 가장한 채 숨어서 '완'을 지켜보는 까닭은, '완'에게 먼저 다가가기에 무척 수줍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뉴뉴'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뉴뉴'는 무지갯빛 폭포에서 눈길을 땔 수가 없었고, 발가벗은 완의 모습과 그의 빨간 호리병박에서 눈길을 땔 수가 없었다.'에서 '뉴뉴'가 '완'이 수영하는 모습과 소리 등이 뿜어내는 유혹에 흠뻑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완'은 강가에 있는 한 쌍의 노동자, 즉 '뉴뉴'가 언젠가는 자신을 쳐다보리라고 생각하여 더욱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였다.

03 '완'이 '뉴뉴'를 만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작은 섬에서 지냈

지만, 그 누구도 ‘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완’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서술형 ‘완’과 ‘뉴뉴’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뉴뉴’가 어렵게 마름 열매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본 ‘완’은 자신이 딴 마름 열매를 ‘뉴뉴’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뉴뉴’가 마름 열매를 받쳐 들자 ‘완’은 감격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완’이 ‘뉴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뉴뉴’에게 마름 열매를 건네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완’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
‘완’과 ‘뉴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뉴뉴’는 ‘완’이 자신을 물에 빠뜨린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자 이를 사과하기 위해 ‘완’을 찾아갔지만 ‘완’은 이미 엄마를 따라 전학을 간 뒤였다. 이에 ‘뉴뉴’는 ‘완’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빨간 호리병박’을 강에 풀어 주면서, ‘완’과의 추억을 떠나 보낸다. ‘뉴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완’에게 사과하지 못한 채 ‘완’과 이별하게 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별 인사도 없이 이사를 간 ‘완’이 원망스럽다고 말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물은 두 아이 사이의 낯섦과 거리감을 모두 녹여 버렸다.’에서 ‘뉴뉴’가 물에 들어온 후로 ‘뉴뉴’와 ‘완’이 더 가까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다)에서 내년에도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뉴뉴’의 말에 ‘완’은 ‘사실 지금도 년 수영할 수 있어. 네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수영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뉴뉴’의 모습을 보며 ‘완’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뉴뉴’는 강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호리병박을 낚아챈 ‘완’에게 배신감을 느껴 ‘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라고 소리치고 있다.

④ ‘완’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는 ‘뉴뉴’의 모습에 서글픔을 느끼고, 마을을 떠나 외갓집으로 이사를 갔다.

06 (다)에서 ‘완’이 ‘사실 지금도 년 수영할 수 있어. 네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라고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완’은 ‘뉴뉴’가 빨간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완’은 강 한가운데에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으면 ‘뉴뉴’가 스스로 헤엄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즉,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뒤 미소를 지으며 ‘뉴뉴’에게서 멀어진 것은, ‘뉴뉴’가 스스로 헤엄쳐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뉴뉴’를 골탕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내공 기르기

‘완’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뉴뉴’를 보며 미소를 지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해. ‘완’과 ‘뉴뉴’가 물에서 놀며 서로 가까워진 상황, ‘완’이 내년에도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뉴뉴’에게 한 말 등을 통해 ‘완’이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렴.

내공 심화 문제

01 (라)에서 ‘뉴뉴’의 ‘외할머니’가 ‘뉴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만, ‘뉴뉴’가 ‘완’과 있었던 일을 ‘외할머니’에게 말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곡식도 익어 가고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도 사그라들었다. 열기가 휩쓸던 하늘에도 이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나 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서술된 부분을 통해,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완’이 ‘사실 지금도 년 수영할 수 있어. 네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뉴뉴’는 모든 것을 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아갔다. 그녀는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엄도 아주 잘 쳤다. 그녀의 수영 실력은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라고 서술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뉴뉴’가 ‘완’에게 내년에도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완’을 믿고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이 자신의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자 당황하여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은 것에서 ‘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뉴뉴’가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행위가 ‘뉴뉴’의 깨달음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뉴뉴’가 어른이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뉴뉴’의 역할을 하는 연기자가 소녀에서 어른으로 바뀌도록 편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뉴뉴’의 빨간 호리병박을 ‘완’이 빼앗아 ‘뉴뉴’가 물에 빠지게 되고, ‘뉴뉴’가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소품으로 빨간 호리병박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뉴뉴’와 ‘완’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강이 있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완’은 ‘뉴뉴’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물에 빠진 ‘뉴뉴’를 구해 주기도 하므로 수영을 잘하는 소년을 ‘완’의 역할로 섭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외할머니’는 ‘뉴뉴’에게 자신이 어렸을 적 겪었던 아버지와의 일화를 이야기해 준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03 ‘뉴뉴’는 자신을 속인 ‘완’을 원망하면서, ‘완’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이는 ‘완’의 아버지가 사기꾼인 것처럼, ‘완’ 역시 자신을 속인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것이지, ‘완’의 아버지를 대신 비난한 것은 아니다.

04 서술형 ‘빨간 호리병박’은 이 소설의 중심 소재로,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다. ‘완’이 ‘뉴뉴’의 ‘빨간 호리병박’을 빼앗아 ‘뉴뉴’가 물에 빠지는 일로 둘의 사이가 멀어지므로 ‘빨간 호리병박’은 ‘뉴뉴’와 ‘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뉴뉴’와 ‘완’의 관계를 중심으로 ‘빨간 호리병박’의 기능을 썼다.	☐
갈등과 관련지어 ‘빨간 호리병박’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

05 (바)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상처를 극복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풀잎'과 '꽃잎'을 의인화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들길', '저녁놀', '풀잎들이 손을 흔든'은 모습 등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풀잎', '꽃잎', '들길', '저녁놀' 등의 자연물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 상처가 있다', '~면'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6 (바)의 5행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흔드는 상처 많은 풀잎의 모습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풀잎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과 상처를 입고 집을 떠난 '완'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문제

- 01** '자맥질'은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 02**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중력(重力)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이라는 뜻이다.
- 03** '파문'은 '수면에 이는 물결.'이라는 뜻이다.
- 04**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이라는 뜻이다.
- 05** 빈칸에는 '만끽'이 들어가야 한다. '만끽하다'는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라는 뜻이다.
- 06** 빈칸에는 '의미심장'이 들어가야 한다. '의미심장하다'는 '뜻이 매우 깊다.'라는 뜻이다.
- 07** 빈칸에는 '가장'이 들어가야 한다. '가장하다'는 '태도를 거침으로 꾸미다.'라는 뜻이다.
- 08** 빈칸에는 '과시'가 들어가야 한다. '과시하다'는 '자랑하여 보이다.'라는 뜻이다.
- 09** 제시된 문장에서 '근사하다'는 책 제목이 '그럴듯하게 괜찮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의 '거의 같다.'는 '실전에 근사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와 같은 문장에서 '근사하다'가 사용될 경우에 해당하는 뜻이다. ②는 '유사하다', ④는 '근면하다'의 뜻이다.
- 10** '한걱정'은 '큰 걱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때의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걱정'의 '한-'은 '큰'이라는 뜻이다. '한겨울'은 '추위가 한창인 겨울.'을, '한밤중'은 '깊은 밤.'을, '한복판'은 '일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한가운데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을 뜻한다.

(2)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기

본문 68~75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사실
03 (1) ㉠ (2) ㉡ (3) ㉢ (4) ㉣ (5) ㉤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① **03** ④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글쓴이에게 나약한 마음으로는 세상의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④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결의
05 억척스럽다 **06** 남아날 **07** 개시
08 무색 **09** ② **10** ②

핵심 체크

- 01** (1) 글쓴이의 어머니는 글쓴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쓴이를 업어서 데려다주셨지만,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2) 글쓴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차별을 당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 02** 경험을 담아 글을 쓰면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 03** (1)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기의 과정에서 글감을 마련하고 글감을 구체화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속한다.
(2) 글감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제목을 정하며,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속한다.
(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처음 - 중간 - 끝'의 구성 단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4)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조직된 내용을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한 편의 글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글을 모두 쓴 후에는 고쳐쓰기를 해야 한다.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지,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문장과 낱말이 바르고 정확하게 쓰였는지 점검한다.
(5) 발표하고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완성된 글을 발표하고, 친구들끼리 평가해 본다. 이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 잘 드러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는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문제 맛보기

01 글쓴이가 유학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글쓴이의 어머니가 글쓴이가 유학을 가는 것을 반대했는지 여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등교하였다.

② 글쓴이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몇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였다.

④ 글쓴이는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⑤ 글쓴이의 어머니는 글쓴이를 놀리는 아이들을 날카롭게 혼내셨다.

02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이중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을 글감으로 선정한다.

오답 풀이 ②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구성 단계에 맞추어 개요를 작성하며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한다.

③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글을 쓴 후에 고쳐쓰기를 한다.

④, ⑤ 발표하고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각자 쓴 글을 발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글을 평가한다.

03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은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이지,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내용 확인 문제

01 이 글은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에서 떠올린 한 장면을 시작으로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 그리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써 내려 간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일기와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하여 소아마비 때문에 겪었던 불편과 차별을 회상하면서 그때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준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일기를 소개하며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ㄴ. 이 글은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쓴 수필로,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지 않다.

02 글쓴이는 어두운 다락방에 보관하던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일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글쓴이가 ‘삼십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열 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한 것은, 일기를 읽으면서 그때의 생각과 꿈 등이 새록새록 돌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작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나’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다)에 ‘나’가 소아마비를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쓴 일기의 내용을 통해 ‘나’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 ‘나’가 초등학교 때의 물건이 담긴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03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떠올려 보고, 마련한 글감 중에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만한 경험을 선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선정한 경험을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써 내려가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지 않는 것은, 자신과 읽는 이 모두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나)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쓴 일기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지 말고 진솔하게 써야 한다.

③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은 수필이 될 것이므로 ‘처음-중간-끝’의 구성에 따라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⑤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경험에서 느낀 감동이나 깨달음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하므로 경험, 느낀 점, 깨달음 등을 정리해야 한다.

04 ㉠의 앞뒤 문맥으로 보아 매우 쉬운 일을 뜻하는 속담이 들어가야 한다.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쇠귀에 경 읽기’는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③ ‘뽕 먹고 알 먹기’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는 아무리 애쓰며 수고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가랑잎으로 눈 가리기’는 자기의 존재나 허물을 숨기려고 미련하게 애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글쓴이가 경험한 일과 비슷한 경험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자기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읽기보다는, 그 경험과 깨달음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06 글쓴이는 자신의 걸음을 흉내 내며 놀리는 아이들을 무시하였지만, 글쓴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그만두지 못해! 애가 너한테 밥을 달라던, 옷을 달라던!’이라고 날카롭게 말하였다. 따라서 글쓴이와 어머니가 모두 글쓴이를 놀리던 아이들을 무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글쓴이에게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약한 마음으로는 세상의 시련(슬픔)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나약함으로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였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내공 심화 문제

01 수필은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하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글쓴이와 자신이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사람임을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장애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차별과 편견, 그것을 이겨 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 주셨던 헌신들을 진솔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 〈보기〉의 글쓴이 역시 청소년 영상 공모전에 떨어졌던 날,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써 가고 있을 뿐이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책 제목을 인용하고 있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보기〉에 제시된 노래 제목은 글쓴이가 자신이 들었던 노래의 제목을 밝힌 것일 뿐, 인용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의 글쓴이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친구가 아닌 노래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장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노래를 듣기 전후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어 글을 서술하고 있다.

03 ㉠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온갖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글쓴이는 장애로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신 '어머니' 덕분에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글쓴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불편과 상급 학교 진학 시 겪었던 어려움 등의 차별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②, ④ 글쓴이는 (라)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고 하였다. (라)에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책의 제목을 인용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장애를 지닌 자신을 위해 억척스러운 전사로 살아온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05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라는 부분을 통해 '어머니'가 조신하고 말 없는 분이시지만, 장애를 지닌 글쓴이를 위해서 강인해지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셨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어휘 문제

01 '기동력'은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02 '아랫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이라는 뜻이다.

03 '태곳적'은 '아득한 옛적.'이라는 뜻이다.

04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낱말은 '결의'이다.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이라는 뜻이다.

05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몹시 모질고 끈덕지게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있다.'를 뜻하는 낱말은 '억척스럽다'이다. '악착스럽다'는 '매우 모질고 끈덕지게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이다.

06 제시된 문장은 돈을 낭비하면 만석꾼의 재산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남아나다'를 활용한 '남아날'이 들어가야 한다. '남아나다'는 '끝까지 남다. 또는 제대로 성하게 남다.'라는 뜻이다. '남아돌다'는 '아주 넉넉하여 나머지가 많이 있게 되다.'라는 뜻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그녀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개시'가 들어가야 한다. '개시하다'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다.', '계시하다'는 '깨우쳐 보여 주다.'라는 뜻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가 노래를 잘하여 초대 가수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무색'이 들어가야 한다. '무색하다'는 '본래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이다. '무시하다'는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09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는 뜻이다. '좌불안석'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로 '노심초사'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태연자약'은 '마음에 어떠한 충동을 받아도 움직임이 없이 천연스러움.'을, '백골난망'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10 제시된 문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에는 '미루다'의 뜻을 지닌 한자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을 뜻하는 '차일피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지지부진'은 '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을, '유구무언'은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을, '백년하청'은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